



원로 도예가 홍재표 옹

60년간 전통 발물레
장작가마 고수,
진사(辰砂)脈 재현

흙·물·불과 나 하나된 곳에서 좋은 그릇 나와

“말로 해서 전할 수 있는 게 있다. 자기가 노력해서 몸에 익히고 느껴야 알지. 난 별로 할 말이 없어.”
겨울이면 영하 20도를 오르내린다는 강원도 용평면 용평면 용정리 방덕골.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그곳에 덩그러니 자리 잡은 고도요(古陶窯)에서 원로도예가 홍재표(73) 옹을 만났다. 높은 가을 하늘 아래 흰 한복에 흰 수염과 머리칼을 휘날리며 온 산이 저렁저렁 울릴 정도로 장작을 펴고 있는 그의 모습은 ‘도인(道人)’ 같다. 홍재표 옹은 우리나라 도예사(陶藝史)에서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 하나는 60여년 동안 발물레와 전통 장작가마를 고수해온 것이고, 또 하나는 국내에서 맥이 끊어졌던 안료 진사(辰砂)를 1970년대에 재현한 것이다. ▲전기물레와 가스가마를 들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배운 게 그것 밖에 없으니까.” ▲발물레와 전기물레로 만든 작품은 차이가 많이 납니까? “만드는 사람은 작품이 좋은지 나쁜지 몰라. (그릇을) 만드는 데만 집중할 뿐이야. 그저 몸이 움직이는 대로 만들어” ▲그릇을 빚을 때 마음은 어디에 둥기까? “마음은 어디에 두는 것이 아니라 비우는 거야. ‘돈 될 만한 걸 만들어야겠다’는 욕심이 붙으면 끝이야.” 고개를 갇웃거리는 기자에게 그는 한 가지 예를 들어준다. “지난달에 대학생들이 만든 작품 70여 점을 봤어. 다들 작품은 좋았지만 느낌이 똑같아. 똑같은 흙과 유약을 사서 똑같은 전기물레에 돌려 만드니 비슷한 작품이 나올 수밖에. 자신만의 흙을 찾고 유약을 개발하려는 노력을 안해. 물레 돌리는 것은 발부터 머리끝까지 기(氣)가 돌아가는 작업이야. 그래서 발물레는 내가 생각한 대로 움직일 수가 있는데 전기물레는 그렇지 않아.” 1970년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진사를 재현한 것에 대해서도 그는 별다른 설명을 덧붙이지 않는다. “우연히 진사 작품을 한 점 사게 됐는데, ‘이거다’ 싶더라고. 그래서 혼자 별자 다 해봤지.” 꽃자주빛의 진사는 고려시대부터 내려오는 유약으로, 산화구리가 녹아있어 이를 이용해 도자기를 구우면 선홍빛을 낸다. 12세기 이후 꽃피었던 진사는 조선시대와 일제 강점기를 거치며 그 맥이 끊어졌다. 진사의 작업 과정이 무척 까다로운 것도 진사 전통이 이어지지 못한 한 요인이다. 진사는 날씨가 좋은 날 장작가마에서 1300도 이상의 고온으로 구워내야만 전통의 붉은 색을 재현할 수 있다. “진사는 손으로 그린 문양이 전혀 없이 가마 안에서 찰나에 이루어지는 우연적인 변화(요변, 窯變)로 그림이 그려지는 거야. 내 손을 떠난 뒤로는 무슨 색이 날지 나도 알 수 없는 거지. 그래서 발색(發色)에만도 10년이 걸렸어.” 진사를 재현하기 위해 그는 전국을 떠돌며 흙을 구했고 유약을 배합하느라 밤을 새기 일쑤였다. 그래도 늘 작품이 되어 나오는 확률은 한 가마에서 5%에도 채 못 미쳤다. 그렇게 40여년. 이제 그는 자신의 진사가 ‘버선본’이라 말할 만큼 강한 자긍심을 가지고 있다. 홍 옹은 얼마 전 반평생을 자신과 함께 해 온 발물레를 셋째 아들 성영 씨에게 물려줬다. 하지만 그 외의 것은 이렇다 저렇다 말로 가르쳐주는 법이 없다. “자기가 노력해서 몸에 익히고 느껴야지. 말로 전할 수 있는 ‘비법’ 같은 건 없어. 그렇게 자기 손끝에, 발끝에 자연스럽게 배어들면 저절로 알게 돼.” 현재 고도요를 운영하고 있는 성영 씨는 “아버지를 보면 거짓말하지 말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한다. 발물레로 도자기를 만든다고 하는 도예가나 교수들이 나이 오십만 넘어도 작업을 하지 못하는 데 반해, 일흔을 넘긴 지금도 손수 물레를 돌려가며 작업을 하는 아버지를 보고 ‘몸에 익음’의 소중함을 느낀다는 것이다. 화두를 타파하듯 작품을 참구해 온 그가 흙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는 흙이, 물이, 불이 곧 자신이기 때문은 아닐까. “60년간 한 가지 일에 매달렸는데 아직 답을 못 찾은 걸 보니 난 바보인 모양이야. 그래도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키는 법이지. 출세하고 잘 나가면 친구들은 다 세상을 떠났는데 나만 아직 살아서 일을 하고 있잖아. 그러니 일생을 건 ‘작품’ 하나 만들어야하지 않겠어?”
평창=여수령 기자 · 사진=박재원 기자

□ 도예가 홍재표 옹은?

1932년 경기도 이천에서 태어나 부친(故 홍순환)의 뒤를 이어 13살 때부터 도자기를 만들기 시작했다. 72년 홍익대에서 도예를 가르쳤다. 75년부터 일본의 박물관과 백화점, 갤러리를 순회하며 물레 시연회와 작품 전시회를 열었으며 88년에는 ‘국제 도자기 워크숍’에 한국 대표로 참석해 3개월간 미국 20개 주립대학을 순회하며 시연했다. 70년대 후반에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진사(辰砂)·사진을 재현해 내 주목을 받았다. 그의 작품은 현재 영국 대영박물관에도 소장되어 있으며 경기도박물관에서는 그가 작업하는 전 과정을 녹화해 영상교육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Since 1991 KASAN INSTITUTE OF BUDDHISH CULTURE 늘 푸른 청진도량 가산불교문화연구원 원장 지관스님

5대 사업 • 『불교대백과사전』 편찬사업 • 불교전문교육사업 : 『三學園』 • 학술연구사업 • 문화교화사업 : 정기 ‘수행문화포럼’ • 전문출판사업 : 4대사업 성과물 및 기획출간사업

“ 불교대백과사전 편찬사업을 후원하거나, 구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伽山佛敎大辭林 회원’ 으로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

2500년 불교사에 있어서 세계 최대 표제어를 수록한 불교대백과사전!
1700년 한국불교사에 있어서 일반불교술어 및 한국불교술어의 정치한 1차 결집!
세계불교학의 연구성과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한국불교학 및 인문학 연구전통의 새로운 지평!



가산불교대사림
예약 및 후원회원

• 현재 1·2·3·4·5·6권 출간! 7권 근간! 전15권 년차 속간 예정입니다.
• 전권금액 2,180,000원, 예약회원은 20% 할인하여 1,750,000(우편료 포함)입니다.
• 예약회원은 『가산불교대사림』 전권 구입을 희망하는 분으로 위의 금액을 3~6개월 분할입금하시면 됩니다.

● 회원들에게는 위의 본원 출간 수행논서들이 함께 증정됩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륜동4가 206-6
TEL. 765-9602~3 FAX. 765-5673